

대학 입학시험, 없앨 것인가

장 주 옥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최근 여러 대학에서 2000년대 초까지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겠다는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발표가 서로 다른 대학에서 거의 같은 시점에 나올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궁금했다. 첫 번째 추측은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 자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생각하면 이 같은 계획을 하루 저녁에 세워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 동안의 교육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이사회, 교수, 학생, 동문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며 부분적으로 실험도 해보았을 테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년은 걸렸을 것이다. 모든 대학들이 이 작업을 동시에 시작하지는 않

았을 텐데 어떻게 동시에 발표하게 되었는지 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빙과류처럼 재철을 못 맞추면 큰일나는 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 추측으로, 만약 타의에 의해 이 같은 계획을 서둘러 발표했다면 그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 대학들이 스스로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과 중요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 한번 열렸다는 소문도 없으니 말이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살인적인 입시 경쟁에 시달려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그것이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여유도 없이 환영할지도 모른다. 중

간고사를 연기하겠다고 하면 될 듯이 기뻐하는 학생들처럼. 그러나 연기된 시험이 언젠가는 치러져야 하듯, 대학 입시가 없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어쩌면 더욱 복잡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추천제라는 그 실효가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날 혼란과 공정성 시비 등은 시험 하나로 단순화된 지금의 경쟁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나은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밤새면서 줄 서고, 내 아이를 앞자리에 앉혀 달라고 사정하는 우리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새로운 제도의 앞날 또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큰 개혁을 시도할 때일수록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데서 출발해야 한다. 입시 경쟁 그 자체는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밑에서도 항상 존재해 왔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는 우리 부모들의 처절한 열망에서 비롯한다. 파출부를 하면서까지 과외비를 대는 어머니를 어느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입시 지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서도 전 과목 과외를 시

키는 부모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개 돈을 써서라도 자식을 능력 이상의 대학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상류층 일부에 국한된 일이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 부모들은 적어도 자식 문제에 관해서는 모두가 상류층이다. 필자도 고교 시절 밤 11시까지 계속되는 자율 학습에 사춘기를 빼앗겼지만, 이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한 일이다. 아무 것도 없이 출발한 대부분의 우리나라 집안들을 생각하면 치열한 입시 경쟁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른다.

일본 제품의 뛰어난 경쟁력이 일본 내에서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한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최고의 품질과 기능을 가진 것만이 살아 남는다고 한다. 그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내수 경쟁에서 승리한 제품이 결국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이야기다. 맨손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짧은 시간에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가 누구인가? 바로 중학생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 입사 경쟁, 승진 경쟁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은 우리의 선배들이 아닌가. 앙드레 모로와는 “경쟁도 상벌도 없는 곳에는 결코 참다운 공부 that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프랑스에서 한때

중·고교 학력시험을 폐지했다가 학력 저하 때문에 부활시킨 적이 있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답시고 공부할 필요가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이 그에 걸맞은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무한 경쟁 속에서 대학도 변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무조건, 함부로 변할 일은 아니다. 현 제도가 가진 장점을 죽이지 않고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 변화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변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확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신과 추천에 의한 선발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고등학교에 그 같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대학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너 스스로 하라.”는 말이 있다.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정하지 않고 누가 하겠는가? 대학에 자율성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흔히 사학재단 비리와 입시 부정을 꼽는다. 대학의 자율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다면 그 책임 또한 그 대학이 져야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감독과 주의를 기울여 하지 않을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금품 수수에 의한 입학 등 파렴치한 범죄는 대학 자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 선발에 관해 대학에 모든 결정을 맡기되,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대학을 위하는 일이다.

대학 입시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숭한 시행 착오를 반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과외비에 지친 학부모들의 원망과 한숨, 수험생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대학 입시 자체를 없애으로써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것은 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연 중심의 인간 관계, 일류대 출신을 찾는 것 외에는 마땅한 인

재 선발 기준이 없는 기업체들, 교육의 내실보다 신입생 입시 성적으로 매겨지는 대학의 순위, 감추고 있는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 탈세까지 하면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만 대학에는 기부할 줄 모르는 부유층, 대학 입시에 관한 한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학부모들의 피해의식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들과 뿌리가 얽혀 있어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일 수록 일도 양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또 대학마다 처지와 지향하는 바가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대학 자신에 맡기는 것이 좋다.

미국 대학의 입학원서를 받아 보면 요구하는 서류, 성적 반영 과목과 비율 및 계산 방법, 추천서 제출 방법, 추천서 양식, 제출 마감일 등이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한 대학 내에서도 학부나 학과에 따라 다르다. 연중 모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정원이 차면 마감 전이라도 신입생 선발을 끝내기도 한다. 그런데도 왜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하는 원망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미국

대학의 입시 제도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하더라도 모두가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학이 가르칠 사람들은 대학 자신이 뽑는다는 것이다.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면, 각 대학은 과거의 등록 포기 비율과 그 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에 대처한다.

이 같은 대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대학 자신의 생존 본능에서 나온다. 이렇게 대학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주위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생명체로 만들어야 누가 보기에 도 자연스러운 대학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날 것이다. ■

장주옥/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석사, 미국 Univ.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삼성전자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서강대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An Optimal Multiplication Algorithm on Reconfigurable Mesh" 외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